



우리는 별에서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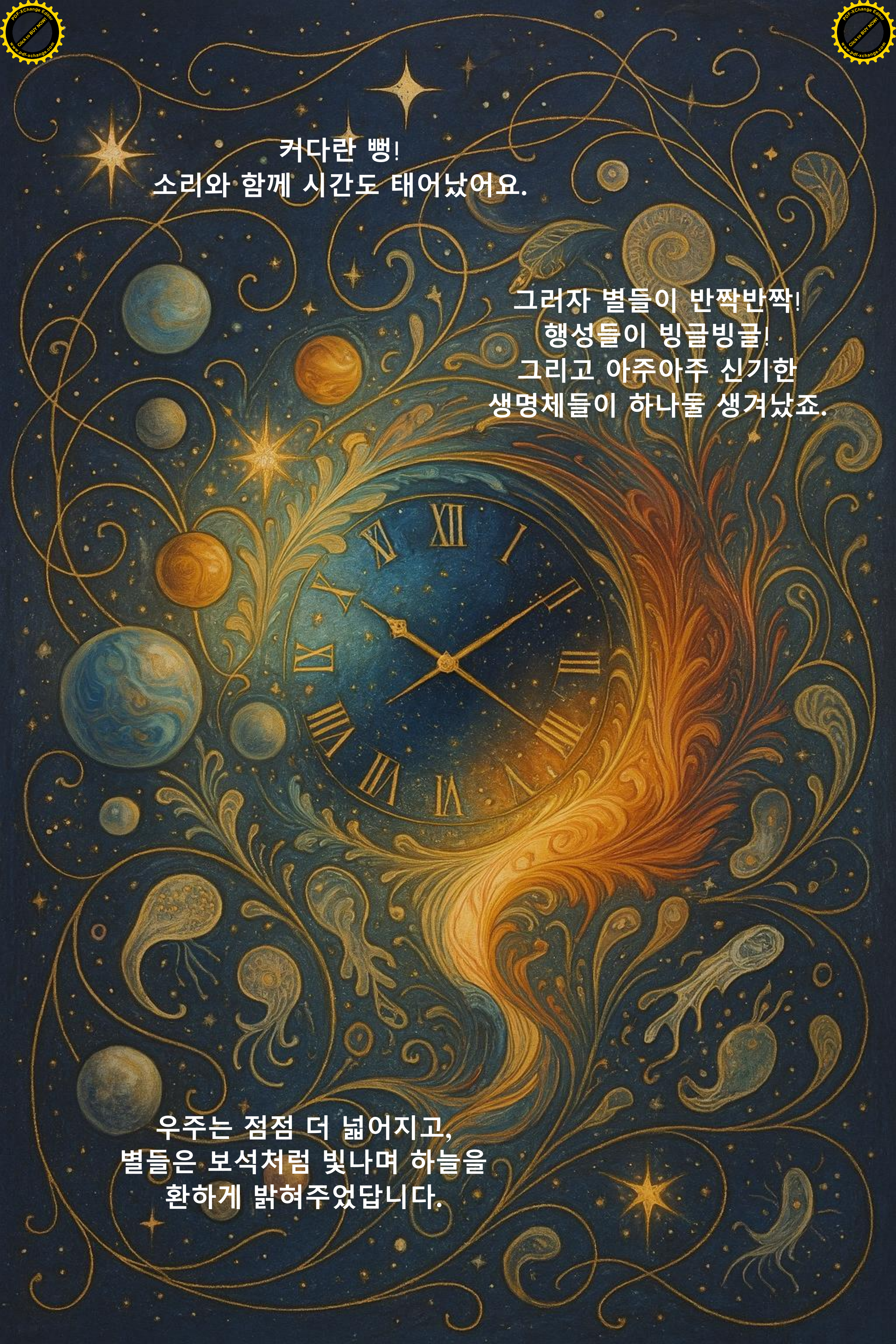




아주 아주 먼 옛날,
우주 저 끝에서 신기하고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주가 태어난 첫 번째 반짝임이라고 불렸죠.

알록달록 예쁜 폭죽이 터지듯 우주가 반짝였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 생겨났답니다.



커다란 뱅!
소리와 함께 시간도 태어났어요.

그러자 별들이 반짝반짝!
행성들이 빙글빙글!
그리고 아주아주 신기한
생명체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우주는 점점 더 넓어지고,
별들은 보석처럼 빛나며 하늘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별들은 아주 특별한 마법의
왕국이었어요.

'별의 마법 알갱이'라는 아주아주
신기한 재료로 만들어졌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따뜻한
에너지를 내는 건,
바로 '꼭꼭 끌어안은 마법'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별의 한가운데에는 신기한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반짝이는 빛과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죠.
이 마법 같은 힘을 '별빛 합치기'라고 불렀어요!

마치 친구들과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아
더 멋진 것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별빛 합치기' 덕분에
별들은 더더욱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날 수 있었답니다.



반짝이는 별 왕국 중 한 곳에서
'모프'라는 예쁜 요정이
태어났어요.
모프는 별들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답니다.
아주 지혜롭고 정말정말
아름다웠죠!



모프는 자신의 마법이
'별빛 합치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별빛 합치기'가 없으면 별들 세상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모프는 자신의 특별한 마법이 자신을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별의 요정 모프는 온 우주의 궁금증 많은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모프는 친구들에게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지,
바로 '별빛 합치기'라는
마법 같은 사랑 덕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별빛 합치기'의 놀라운 힘과,
그 힘이 별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준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별이 없으면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친구들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별의 마법을 가르쳐 준
모프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모프가 태어났던 별들은 점점 빛을 잃고 힘이 없어졌죠.



모프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환하게 빛나던 별 하나가
모프에게 말을 걸었어요.

"모프야, 슬퍼하지 마.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야."
모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별을 올려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프가 물었죠.
별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주 작고 반짝이는
씨앗처럼 작아지고
또 작아질 거야."

그리고는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빛과
예쁜 색깔로 우주 전체에 우리의
마법과 사랑을 활짝 퍼뜨릴
거란다!"





환한 빛과 함께 친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에 모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프는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프는 우주에 사는
모든 궁금증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별들의 멋진 재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프는 '별빛 합치기' 마법이
어떻게 아름다운 빛과
색깔 폭발을 만드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했죠.



궁금증 많은 친구들 중에 길고 반짝이는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모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친구 별들이 뱅! 하고 폭발할 때,
반짝이는 조각들을 모아줘!"

"그리고 그 별 조각들이 예쁘게 피어날 수
있는 멋진 곳도 알려줘!"



무지개처럼 빛나는 뿔을 가진 하얀 유니콘
말이 웃으며 말했어요.
"별 조각 모으는 건 걱정 마!
난 정말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



커다란 귀를 펼럭이는 코끼리도
대답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여행하다가
'지구'라는 아주 멋진 곳을
발견했어!
그곳으로 가면 정말 좋을 거야!"




드디어 별들이 뱅!
하고 터지면서 아름다운
빛을 뿜어냈어요.



별의 요정 모프는 길고 반짝이는 꼬리 물고기,
무지개빛 뿔 유니콘, 그리고 커다란 귀 코끼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별들의 조각들을 모아 '지구'로
가져왔답니다.



모프는 반짝이는 별 조각들을
바람 속에 살랑살랑, 바다 속에 첨벙첨벙,
흙 속에 조심조심 심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나는 예쁜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모프는 살금살금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바다 깊은 곳에서 작고 신기한 생명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체들은 바닷속을 둥둥 떠다니고 침범침범 헤엄쳤어요.



어떤 친구들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고 쑥쑥 자라났죠.
나중에 땅에서 자라날 풀잎이나 나무처럼 말이에요.

모프는 이런 생명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마법
같아서 모프의 마음은
두근거렸답니다.

점점 더 많은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모습도 바뀌면서,
이제 땅으로도 올라오고 하늘을 훨훨 나는 친구들도
생겨났어요!



처음 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진 멋진
세상을 만들어냈죠.

모프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프 자신처럼,
별의 마법 가루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자와 코끼리는 넓은 들판을 어슬렁거리고,
돌고래와 고래는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쳤죠.



땅에서는 뱀과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 다니고,
하늘에서는 예쁜 새와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구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프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모프가 지금까지 본
어떤 생명체와도 달랐어요.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신나는 이야기를 만들고,
저 멀리 반짝이는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도 지구의 다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은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똑같은 마법 가루로 함께
만들어진 거랍니다.




모프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지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잘 돌봐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모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구에 사는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모프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지구의 모든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달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모프는 밤하늘에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반짝이는 존재들이야.
똑같은 생명 마법으로
꽂꽂 연결되어 있단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답고 신나는
세상을 만들자!
자연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보호하자!"



그날부터 사람들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프의 반짝이는 별빛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똑같은 생명의 마법 가루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마법처럼 신기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